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The Situation and Vision of Sam-ae Church, and the Embodiment of Sam-ae Spirit

저자 (Authors)	정종훈 Chong-Hun Jeong
출처 (Source)	신학논단 66, 2011.12, 109-124(16 pages) Theological Forum 66 , 2011.12, 109-124(16 pages)
발행처 (Publisher)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59197
APA Style	정종훈 (2011).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신학논단, 66, 109-124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233.206.*** 2021/04/06 22: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삼애정신의 구현

정 종 훈*

I. 들어가는 말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와 알렌 그리고 에비슨 등 설립자들의 신앙열정과 기도 위에서 출발한 기독교 대학이다.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교훈 아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지지와 관심 가운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126년 전통의 계승을 통해 연세인의 연세로, 민족의 연세로, 나아가 세계의 연세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인 연세대학교 안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개의 대학교회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신촌캠퍼스에는 연세대학교교회가, 원주캠퍼스에는 원주대학교교회가, 그리고 일산의 삼애캠퍼스에는 삼애교회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중 2006년 9월에 창립된 삼애교회는 1933년 10월에 창립된 연세대학교교회나 1984년 3월에 창립된 원주대학교교회에 비해서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창립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삼애정신의 지평 위에서 있는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비전과 선교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삼애교회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삼애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삼애교회가 자

*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설정해야 할 네 개의 관계망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창립의 배경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로서 조만식 선생과 농촌운동을 함께 한 배민수 목사는 1951년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대전에서 기독교연합봉사회를 창설했고, 1953년 금융조합연합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농촌부흥을 위해서 매진했다. 그는 1955년 금융조합연합회 회장을 사임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그의 노력을 일단락 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¹⁾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1957년 대전에서 기독교농민학원을, 1962년 역시 대전에서 기독교여자농민학원을 설립했다. 1967년 12월 배민수 목사는 경기도 일산 중산동 일대의 부지에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을 설립함으로써 농촌부흥을 위한 그의 원대한 꿈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8년 8월 25일 아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그는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의 꿈을 넘겨야만 했다.²⁾

그 후 삼애농업기술학원은 배민수 목사의 부인 최순옥 여사에 의해서 운영되다가³⁾ 삼애농업기술학원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⁴⁾ 1976년 9월 1일 연세대학교에 귀속하게 되었다. 당시 삼애농업기술학원의 상임이사였던 최순옥 여사는 배민수 목사가 1933년 9월부터 초대 농촌부 총무직을 수행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나, 1954년 12월부터 초대 이사장직을 수행한 숭실대학교에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순옥 여사는 농

1)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51 (2008), 130. 최재건은 배민수 목사가 이승만 계로서 자유당 중앙위원 15인회까지 진출했으나,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이기붕에 의해 축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배민수/박노원 옮김, 『배민수 자서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365f.

3)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제12회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 자료집』 (2011. 9), 49-88. 정석환은 배민수 목사의 부인인 최순옥이 남편의 삼애정신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최순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4)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은 재단이사장 강신명과 설립자겸 상무이사 최순옥의 명의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및 유지경영학교 기증 건”의 기증의사를 담은 공문을 1976년 7월 30일 연세대학교 총장 앞으로 발송함으로써 연세대학교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업개발원을 부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사랑, 노동사랑)을 계승 발전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판단하고,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애농업기술학원과 법인에 속한 일체의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도록 주도했다.⁵⁾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받은 연세대학교는 부지 약 18만1천819m²(5만 6천평) 규모에 삼애캠퍼스를 조성했다. 1980년 12월 천문학과를 주축으로 지상 2층의 천문대 일산관측소(Goto 61cm 반사망원경)를 설치하는 동시에 2층 건물의 배민수기념관을 건립하여 봉헌했다. 그 후 2000년 총면적 39,264평의 부지에다가 축구·럭비 겸용구장과 야구장을 국제 규격의 경기장으로 조성했고, 보조경기장과 이동식 백네트(야구장) 등의 부대시설을 아울러 설치했다.⁶⁾ 그러나 삼애캠퍼스의 이와 같은 조성은 배민수 목사 유가족이 최초로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하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삼애정신에 입각한 농촌지도자 육성 △배민수기념도서관 건립 △삼애농업기술학원 교실 증축 △배민수기념 초교과교회 건립 △배민수 목사 묘역 관리 △“삼애농업기술학원-삼애농장” 명칭 교육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운영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⁷⁾

이로 인해 배민수 목사의 유가족들은 연세대학교가 자신들의 기증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1993년 8월 12일 연세대학교와 유가족 사이를 중재하는 법적 권한의 일체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측에 위임하기에 이르렀다.⁸⁾ 그 후 6가지의 기증조건이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했다. 교육적인

5)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79. 정석환은 이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최순옥은 기증 측인 삼애재단의 뜻과 기독교 연합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고 확신했다. 사실 이 기증은 유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최순옥의 단독 결단이었다.”

6)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http://ko.wikipedia.org/>

7) “삼애기념사업, 총회 연대간 협력필요,” 〈기독교보〉, 2007. 10. 20, <http://www.pckworld.com/>

8) 연세대학교는 1976년 9월 1일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받은 이래로 17년간 4년 임기의 총장이 네 사람이 바뀌었지만, 기증조건 6가지의 이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장 한정직, 당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이사 김성원, 당시 재단법인 삼애농업기술학원 감사 김광윤, 배민수 박사 기념사업회 고문 김광윤, 유족대표 배영 4인은 1993년 8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중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통해서 “극한 충들을 피하여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건실적이고 인격적이며 성서적인 관계로 이끌기 위해... 총회에 권고와 협력을 구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차원에서 먼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내에 배민수 목사 기념의 목회학 석사과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은 다원농어촌 석사과정을 거쳐 지금은 삼애 특별 박사과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2006년 초 이래로 기왕의 배민수 기념관을 정비해서 2층의 1실을 배민수기념전시실로, 다른 1실을 배민수도서실로 조성하는 동시에, 배민수 목사 기념의 초교파교회인 삼애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긴 여정 속에 설립된 삼애교회는 연세대학교가 삼애농업기술학원을 기증받은지 꼭 30년 만에 이루어진 유가족의 기증조건 6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III.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현재 상황

삼애교회는 2006년 9월 17일에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립된 연세대학교 일산캠퍼스 내에 세워진 대학교회이다. 삼애교회는 특정 교파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로서 연세대학교의 부속기관이고, 담임목사는 부속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총장의 임명을 받고 있다. 삼애교회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정신과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을 조화시키는 것을 그 특성으로 삼고 있으며, 예배, 교육, 친교, 선교의 주안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며,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소명의식을 배가하고, 주변 환경을 선교적으로 선용하며, 농촌을 비롯한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중시한다.”⁹⁾

연세대학교 15대 총장 정창영 총장은 삼애교회의 설립을 위해 박정세 교목을 제1대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박정세 교목은 2006년 6월 1일 삼애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삼애교회의 초석을 쌓으며 교회의 방향을 설정했다. 그는 2006년 7월 9일 삼애교회의 창립을 위해 몇몇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준비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기도회의 시작 이래 불과 2개월만인 2006년 9월 17일에 창립예배를 드릴 만큼 열정을 다했다. 그가 재직하는 동안 실행한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선교회 주관의 삼애농장 운영과 유실수 가꾸기, 도시선교회 주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그리고 교인들의 영성적 깊이를 위한 삼애기도길 조성 등이었다고 말할 수

9) 삼애교회의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samae/>

있다.

삼애교회의 제2대 담임목사로는 2010년 3월 1일 정종훈 교목이 부임했고, 지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정종훈 교목은 전임 박정세 교목의 수고 위에 교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삼애교회의 비전과 선교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삼애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삼애교회는 성인 교인 100여명, 어린이와 청소년 교인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일 예배에 100명 내외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삼애교회의 정기집회는 교사예배, 주일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중보기도모임, 주일오후 특별행사(첫째 주일 각 신도회 모임과 교회위원회 정기월례회, 둘째 주일 삼애교우 이야기, 셋째 주일 목장별 모임, 넷째 주일 주제별 시리즈 성경공부와 파주의료선교)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 보면, 연세대학교 본부는 삼애교회의 유지를 위해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했고, 3년째부터는 자체적인 재정의 자립을 기대하면서 지원을 중지했다. 하지만 완전한 자립까지 이르지 못했다. 창립 4년째가 되면서부터 비로소 삼애교회는 재정의 완전한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IV. 연세대학교 삼애교회의 비전과 선교정책

삼애교회는 창립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신앙공동체이다. 대개 역사가 길고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삼애교회는 대단히 젊은 교회이기에 수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삼애교회의 연륜이 짧은 것은 실험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지금 삼애교회는 크게 네 가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선교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삼애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서 교파초월의 에큐메니칼 신앙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¹⁰⁾ 배민수 목사

10) “고대 교회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381)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직후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항목 직후에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하였다.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적 속성들을 에큐메니칼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하나’란 다양성과 특수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 추구되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

는 예수교장로회 교파의 목사로서 농촌부 초대총무까지 하였고, 게다가 예수교장로회 교파에 속한 숭실대학교의 이사장까지 역임했지만, 그의 유가족들은 삼애동산에 배민수 목사를 기념하는 초교파교회가 건립되기를 원했다. 일반적으로 교파에 속한 사립대학이 교내에 대학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대학교회 역시 그 교파에 소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이기 때문에 신촌캠퍼스의 대학교회와 마찬가지로 일산캠퍼스의 삼애교회도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은 대학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교파교회인 삼애교회는 특정교파의 신학과 예전에 매이지 않는 대신에 세계 모든 교회가 공유하는 에큐메니칼 신앙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세계교회가 공유하는 교회정과(Lectioary)를 사용함으로써 말씀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실행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삼애교회는 다양한 교파의 목회자들을 설교자로 초청해서 다양한 신앙전통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삼애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교계의 의미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¹¹⁾

삼애교회의 두 번째 비전은 한국교회를 향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¹²⁾ 한국교회에는 신본주의의 미명 아래 목회자의 독재가 횡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등식화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신본주

을 뜻한다. ‘거룩한’이란 복음을 통한 성령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신칭의와 성화로 나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됨을 뜻한다. ‘보편적’이란 단순히 모든 개 교회들의 집합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피조물이요, 세례와 성만찬의 공동체요,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 교회들과 지역별 교회들의 정체성을 담보하면서, 통시적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연속성과 공시적으로 모든 장소의 교회들의 유기적인 공동체성을 뜻하고, ‘사도적’이란 복음과 성령의 사도성, 세례와 성만찬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적 직제와 직무의 사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apostelo’는 ‘내가 보낸다’를 뜻한다) 받는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바른교회 아카데미 홈페이지 “교회의 네 가지 본질: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 (2007. 7), <http://gcacademy.tistory.com/>

11) 삼애교회는 한국교회 전체 교회가 2010년 8월 15일에 개최한 한국교회 8.15대성회에 참석했고, 2011년 8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가 주관한 2011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했으며,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가 주도하는 수입1%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후원하고 있다.

12)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이학준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개신교회의 현황과 방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의는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절차를 부정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인간 다수의 생각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민주적 절차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애교회는 교회운영위원회라는 대의기구를 통해 교회 운영의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삼애교회는 재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회운영위원회와 공동의회에서 수입과 지출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세히 보고하고 집행한다. 또한 삼애교회는 평신도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애교우 이야기나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평신도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사실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는 개혁을 향한 열정이다.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est.*)는 표어는 인간의 죄성과 조직의 고착성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삼애교회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남녀평등과 세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균형을 강조한다. 삼애교회는 차별과 편견의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내국인과 외국인, 남한 사람과 탈북 새터민 등의 동반자적 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삼애교회는 남북이 대립하는 세상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삼애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을 이 시대의 정신으로 재해석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배민수 목사는 그의 글 “우리의 삼대강령”이란 글에서 삼애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¹³⁾ 그는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목사가 제창한 하나님 사랑(愛神), 이웃 사랑(愛人), 나라 사랑(愛土)에 감동을 받아 한국전쟁 직후의 암울한 한국사회를 바로 세우고자 자신의 말로 이해된 삼애정신을 주장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愛神)이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개인과 민족만이 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자유 독립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농촌 사랑(愛農)이다. 우리 농촌의 흙을 사랑하고, 맑은 공기와 시냇물, 아름다운 꽃과 새소리를 사랑하고, 농촌의 춘하추동과 미풍양속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어

13) 방기중 편, 『복음주의와 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151-152.

린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낙원이자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상향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노동 사랑(愛勞)이다. 노동과 노동자를 천대하는 관습을 청산하고,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귀하고 자랑스럽고 숭고한 것임을 알 아 국가건설과 문화생활의 개척자가 되고, 노동의 산물을 이웃과 나누자는 것이다.¹⁴⁾ 배민수 목사의 이와 같은 삼애정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창조세계의 사랑과 맞물리는 보편 정신이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과학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요청되는 삶의 지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애교회는 삼애정신을 우리의 시대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삼애교회의 네 번째 비전은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로서 캠퍼스 선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군대선교와 해외선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0만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대선교는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든 이승만 정권 이래로 모든 교파와 교단이 경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세계 제2의 선교국가로서 공식적인 선교사만 20,000명 이상을 파송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국내선교의 부진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선교에 몰두하고 있다.¹⁵⁾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작 절실히 필요한 대학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현재 한국의 대학 캠퍼스 안에는 대학생이라는 동일한 대상의 젊은이들이 거의 300만 명 정도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다.¹⁶⁾ 이들 대학생 젊은이들은 대개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데 몰두하고 있고,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이단 사이버의 적극적인 포섭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한편 그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교회를 아주 비판하는 입장에 있고, 그나마 교회에 머물러 있던 대학생 젊은이들조차 교회를 떠나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의 장래

14) 앞의 책, 370.

15) <고신사랑신문>, 2011. 1. 25, <http://www.kosinl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

16) <연합뉴스>, 2007. 1. 18,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7/01/18/>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는 지극히 절망적이다. 그러므로 삼애교회는 연세대학교 일산캠퍼스에 있는 대학교회로서 대학 캠퍼스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애교회는 기독교학생동아리 수련회나 기독교 연합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공간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삼애교회는 기독교학생동아리 지도간사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국제학생들이나 탈북 새터민학생들의 모임을 후원하고 있다.

V.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 구현하기

배민수 목사가 활동하던 일제하에서의 극악한 삶,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미 OECD 국가의 회원국가가 된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대단히 상이하다. 당시에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농촌인구(전체인구의 80% 이상)를 구성하고 있었고, 농촌은 가난의 대명사 그 자체였다. 물론 지금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면이 없지 않으나, 당시의 농촌인구에 비해 현재의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¹⁷⁾ 2010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농촌인구(875.7만 명)는 전체인구 4,858만 명에 대비해서 18%에 불과하다.¹⁸⁾ 그러므로 삼애교회는 배민수 목사가 제안한 삼애정신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영역이다. 하나님 사랑이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그분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의미한다. 모든 기독교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출발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삶의 자리에서 표출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 관계성 역시 일관성 있게 확장할 수 있다.¹⁹⁾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삼애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

17) 농촌인구는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로 구성되는데, 농가인구가 1995년 485만 명에서 2009년 312만 명으로 크게 줄면서 농촌인구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농촌인구(읍·면 지역 인구)는 1995년 957.2만 명에서 2010년 875.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

18) 통폐는 세상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_nso&logNo=130110546337

19) 위르겐 몰트만/김균진 옮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13.

배 전 실내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며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성서정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양하게 선포한다. 매주 진행되는 성찬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체화한다. 그리고 삼애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삼애기도길을 조성함으로써 깊은 기도를 훈련한다. 삼애기도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14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혜촌 김학수 선생의 그림과 성경의 해당 구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교회의 사명과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결단하도록 한다.²⁰⁾ 또한 삼애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깊이와 통찰력이 있는 성경공부를 운영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자 핵이라 말할 수 있는 주기도문, 십계명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는 농촌 사랑의 영역이다. 배민수 목사 당시의 농촌은 가난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을 총칭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농촌을 포함해서 가난하고 척박한 삶의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들(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²¹⁾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의 농촌 사랑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세상, 남성이 여성을, 비장애인이 장애인

20) 삼애동산 기도길의 안내문을 보면,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과 섬김의 삼애동산에 오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삼애동산 기도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삼애동산은 독립운동, 농촌운동으로 평생을 살아오신故 배민수목사 유가족들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신 귀한 유산입니다. ‘삼애(三愛)’는 배민수 목사님이 평생토록 추구하신 <하나님 사랑>, <노동사랑>, <농촌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애동산 기도길은 14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그 분의 삶과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과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혼자, 혹은 두 세 사람이, 혹은 단체로 기도길을 걸으면서 각 단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삼애동산 기도길’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소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15일 창립 5주년 즈음에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21) 마태복음 25:31-46.

을, 내국인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등등의 세상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다.²²⁾ 농촌 사랑을 위해 삼애교회는 전체인구의 19%가 농촌인구임을 감안해서 농촌과 관련한 사안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농촌교회와 유기농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농촌지역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 전국의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무료캠프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삼애교회는 농촌 사랑을 위해 우리 시대의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삼애교회의 공간과 시설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 가정, 홈스쿨링가정 등)이 의미있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애교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 식구들, 탈북 새터민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까지 환영하고 지원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는 노동 사랑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관리하기 위해 인간을 청지기로 삼으셨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 창조세계는 인간이 얼마나 제대로 일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풍성함에 이를 수도 있고, 황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축복이다. 모든 인간이 창조세계의 관리를 위해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귀천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창조세계의 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외 없이 성직(聖職)이다. 이는 오스 기니스가 말하는 소명의 폭넓은 이해와도 상통한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뿐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 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 분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진리이다.”²³⁾ 기독교는 인간이란 일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일을 통해 얻은 산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자신의 달란트와 잉여산물로써 이웃을 섬기며 사는 존재라고

22) 정종훈,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6-67.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평화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초대받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개체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 자연과의 공존을 이루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와 생태계 전체의 영원한 희망이다.

23) 오스 기니스/홍병룡 옮김, 『소명』 (서울: IVP, 2003), 13.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애교회는 교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삼애교회 자체의 모든 조건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교인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는 음악회를 공연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의사인 교인들과 함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찾아가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삼애교회는 주말농장인 ‘삼애나눔농장’을 직접 가꾸어 수확한 결실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 삼애교회는 다운증후군, 자폐, 정서장애 등의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삼애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가 주 5일제 수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삼애교회는 주말 만이라도 교육, 예술, 상담 분야의 전문가 교인들의 동참 하에 지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주말학교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들은 다름 아닌 노동 사랑의 일환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VI. 맺는 말

삼애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다른 교회들과 유사한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삼애교회는 존재해야 할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삼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민수 목사의 삼애정신의 지평 위에서 비전과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삼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흔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삼애교회는 장기적인 안목 위에서 조금씩 하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곧 꿈을 제대로 이루고자 울며 씨를 뿌리는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제 삼애교회는 자신의 비전과 선교정책을 실현하고, 삼애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네 개의 관계망을 주시해야 한다. 첫째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이다. 삼애교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박고, 지역사회에 구체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수 있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방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의 관계망이다. 삼애교회는 배민수 목사 기념강

좌와 삼애특별 박사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과 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는 연세대학교 대학본부와의 관계망이다. 삼애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연세대학교 일산캠퍼스에 대한 연세대학교 대학본부의 큰 그림과 삼애교회의 비전을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는 삼애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삼애교회는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인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는 한국교계와의 관계망이다. 삼애교회는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도함으로써 한국교계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교파교회로 출발한 삼애교회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주제어(Keywords)

배민수, 비전, 삼애교회, 삼애정신(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 최순옥 (Pai Minsoo, Vision Statements, Sam-ae Church, Sam-ae Spirit(the love of God, the love of rural community, the love of labor), Choi Sun-Ok)

참고문헌

- 기니스, 오스/홍병룡 옮김. 『소명』. 서울: IVP, 2003.
- 몰트만, 위르겐/김균진 옮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 방기중 편. 『복음주의와 기독교 농촌운동』.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배민수의 농촌운동과 기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배민수/박노원 옮김. 『배민수 자서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정석환. “최순옥 여사의 생애와 사상.” 『제12회 배민수 목사 기념강좌 자료집』 (2011. 9): 49-88.
- 정종훈. 『기독교 사회윤리와 인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최재건. “배민수 목사의 생애와 사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삼애특별 박사과정 자료집』 (2011).
- _____. “배민수 목사의 미국에서의 활동.” 『신학논단』 51 (2008): 111-138.
- 〈고신사랑신문〉. 2011. 1. 25. <http://www.kosinlov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
- 〈기독교공보〉. 2007. 10. 20. “삼애기념사업, 총회 연대간 협력필요.” <http://www.pckworld.com/>
- 〈연합뉴스〉. 2007. 1. 18.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7/01/18/>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http://ko.wikipedia.org/>
- 바른교회 아카데미 홈페이지. “교회의 네 가지 본질 :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 (2007. 7). <http://gcacademy.tistory.com/>
- 삼애교회의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samae/>
- 통하는 세상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_nso&logNo=130110546337

Abstract

The Situation and Vision of Sam-ae Church, and the Embodiment of Sam-ae Spirit

Chong-Hun Jeong, Dr. theol.

Professor,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The Sam-ae Church was founded on September 17, 2006 to meet one of the six conditions suggested by the bereaved family of Rev. Pai Minsoo who donated the Sam-ae Technical Institute of Agriculture to Yonsei University. The six conditions are as follows: 1) to foster a rural leadership based on the Sam-ae Spirit; 2) to establish Pai Minsoo Memorial Library; 3) to extend the classrooms of the Sam-ae Technical Institute of Agriculture; 4) to found Pai Minsoo Interdenominational Memorial Church; 5) to maintain the graveyard of Rev. Pai Minsoo; 6) to administer the existing educational programs by the Sam-ae Technical Institute of Agriculture.

The Sam-ae Church is one of the two interdenominational churches of Yonsei University. The church has been growing since its establishment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am-ae Spirit initiated by the late Rev. Pai Minsoo and the Christian identity of Yonsei University. The first senior pastor of the church is Rev. Jeong Se Park, succeeded by the present senior pastor, Rev. Chong Hun Jeong. Both of them serve as chaplains in the office of chaplaincy at Yonsei University. As of September 2011, the church has approximately 100 adult members in the congregation and around 20 kids in the Sunday School. It became financially independent since 2010, the fourth year after its establishment,

The Sam-ae Church carries its mission on the basis of its four vision statements; 1) to promote ecumenism in the faith community as “one,

holy, universal, and apostolic church”; 2) to provide a democratic and reformed model for the churches in Korea; 3) to reinterpret and implant the Sam-ae Spirit of Rev. Pai Minsoo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Korean society; 4) to actively support the campus mission at Yonsei University.

The Sam-ae church is striving to embody the Sam-ae spirit of Rev. Pai Minsoo represented by the ensuing three loves; 1) “the love of God” - to restore the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deepen it; 2) “the love of rural community” - to love our neighbors in areas suffering from poverty; 3) “the love of labor”- to design and develop a variety of practical activities participated by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to serve people.

The Same-ae Church is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churches in that it emphasizes on building up its relationship with the following four communities to fulfill its mission; 1) the local community of the church; 2)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t Yonsei University, which runs the Pai Minsoo Memorial Lecture and the Sam-ae Special Doctoral Program; 3) the head office of Yonsei University which is inseparable in the establishment of Sam-ae church; 4) the Korean Church in general beyond any particular denomination and local churches for the promotion of ecumenism.

- 투고접수일: 2011년 9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1년 11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17일